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02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5

- 산둥·장쑤·광둥, 3개 한중산업단지 승인 16
- 징진지, 에너지 협동 발전 행동 계획 실시 18
- 산둥성, 식량 생산기능구와 중요 농산품보호구 구축 19
- 랴오닝성 선양시, 농업 현대화 건설 업무 방안 발표 21

현대중국의 이해 22

- 대약진과 대기근 23

충청중국포럼 소식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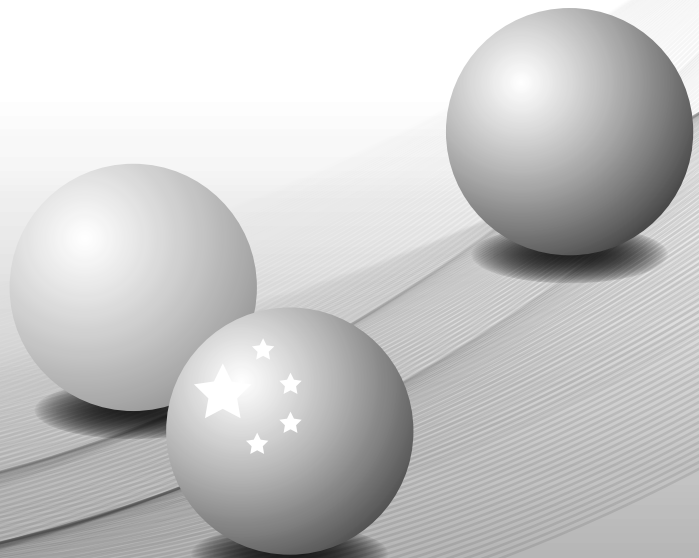
- 제25·26회 충청중국포럼 37

발간목록 42

이슈와
진단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비웨이닝·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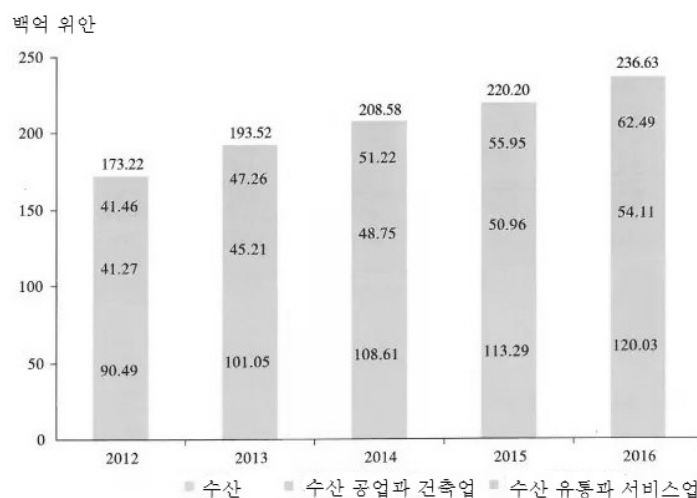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수산업(漁業)은 1978년 16.3억 위안에서 2016년 23,662억 위안으로 38년간 약 1,452배 증가했다. 또한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8년 0.5%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3.1%로 3% 선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 되었고 2016년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6,900만 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수산업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수생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면서 어장의 사막화 심화 등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중국 수산업의 현황, 추진 동향,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중국 수산업의 발전 현황

- “중국수산업통계연감(中国渔业统计年鉴)2017”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수산업 총생산액은 약 23,662억 위안이었다. 이 가운데 수산, 수산 공업과 건축업, 수산 유통과 서비스업은 각각 12,003억 위안, 5,411억 위안, 6,249억 위안에 달하였다.

수산업별 비중은 수산(50.7%), 수산 공업과 건축업(26.4%), 수산 유통과 서비스업(22.9%)순이다.

수산 생산액 중에서 해양어획, 해수양식, 담수어획, 담수양식, 수산묘종(苗种)은 각각 1,977억 위안, 3,140억 위안, 431억 위안, 5,813억 위안, 641억 위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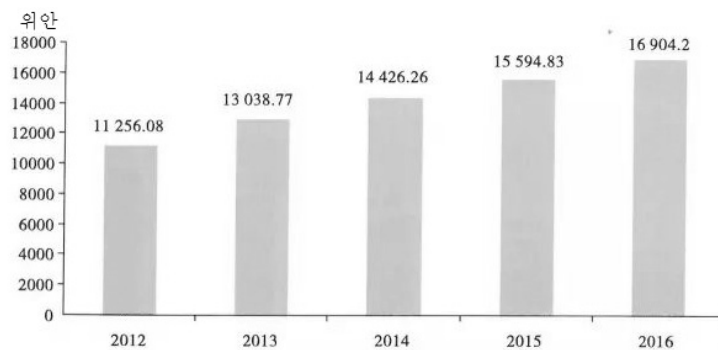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수산업 생산액 현황(2012-2016)

자료: 中国渔业统计年鉴2017

- 1만 어민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중국 어민의 1인당 순소득은 16,904위안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2012년에 어민 1인당 순소득은 11,256위안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6,904위안으로 15,000위안 선을 넘어섰다. 5년 동안 약 5,700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중국 어민 1인당 순소득 현황(2012-2016)

자료: 中国渔业统计年鉴2017

- 중국 수산물 총생산량은 6,9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양식생산량은 5,142만 톤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어획생산량은 1,75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1인당 수산물 점유량은 49.9kg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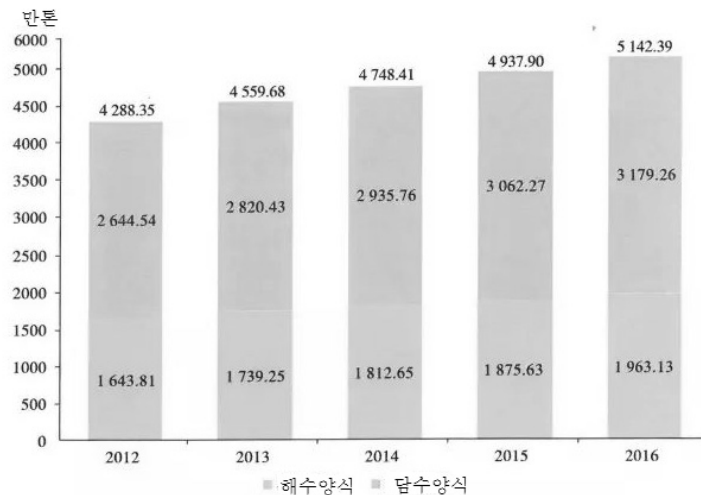
수산물 생산량 비중은 양식생산량(74.5%), 어획생산량(25.5%) 순이다.

수산업 생산 중에서 어(魚)류, 갑각(甲殼)류, 패(貝)류, 조(藻)류, 두족(頭足)류와 기타 종류의 생산량은 각각 4,040만 톤, 712만 톤, 1,529만 톤, 220만 톤, 72만 톤과 129만 톤이다.

양식생산량 중에서 해수양식과 담수양식은 각각 1,963만 톤과 3,179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와 3.8% 증가하였으며, 해양어획과 담수어획은 각각 1,328만 톤과 2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와 1.8% 증가하였다.

해수양식 생산량 중에서는 패류(1,421만 톤), 조류(217만 톤), 갑각류(156만 톤), 어류(135만 톤) 순이다. 특히 어류 해수양식 생산량은 부세(17만 톤), 농어(14만 톤), 홍어(12만 톤)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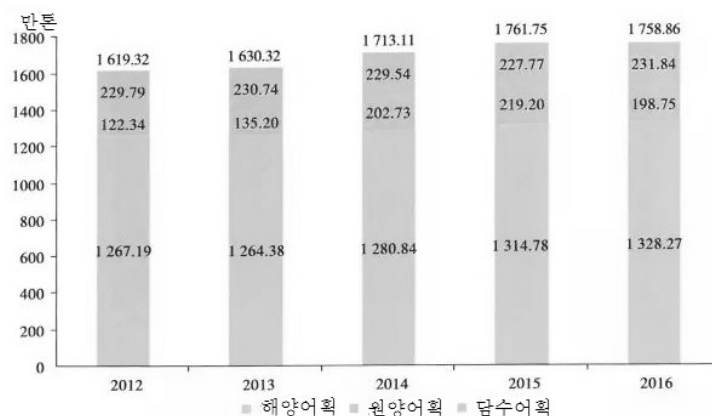
담수양식 생산량 중에서는 어류(2,816만 톤), 갑각류(284만 톤), 패류(27만 톤)순이다. 어류 담수양식 생산량은 초어(590만 톤), 연어(451만 톤), 잉어(350만 톤) 등의 순이다.



<그림 3> 중국 해수양식과 담수양식 생산량 현황(2012-2016)

자료: 中国渔业统计年鉴2017

해양어획 생산량 중에서는 어류(919만 톤), 갑각류(240만 톤), 두족류(72만 톤), 패류(56만 톤), 조류(2만 톤) 등의 순이다. 어류 중에서는 갈치(109만 톤), 멸치(98만 톤) 순이다. 담수어획 생산량 중에서는 어류(171만 톤), 갑각류(32만 톤), 패류(26만 톤), 조류(383톤) 등의 순이다. 원양(遠洋)어획 생산량은 199만 톤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고 해양 수산물 생산량의 5.7%를 차지한다.



<그림 4> 중국 해수어획, 원양어획과 담수어획 생산량 현황(2012-2016)

자료: 中国渔业统计年鉴2017

- 중국 수산물 가공총량은 2012년 1,907만 톤에서 2016년 2,165만 톤으로, 5년간 약 258만 톤 증가하였다. 수산물 가공량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6년 담수가공품과 해수가공품은 각각 390만 톤과 1,7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와 3.3% 증가하였다.

해수가공품에서는 수산 냉동품(1,405만 톤), 어육 및 건·염제품(324만 톤), 기타 수산가공품(208만 톤), 조류가공품(106만 톤), 수산사료(어분)(71만 톤), 통조림제품(45만 톤), 어유제품(7만 톤)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산가공제품 생산 현황을 보면 대부분은 연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16년 기준 산둥이 698만 톤으로 전체 수산가공품 총량의 3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푸젠(351만 톤), 저장(216만 톤), 랴오닝(244만 톤), 장쑤(160만 톤), 광둥(150만 톤) 등의 순이었다.

- 2016년 중국 수산물 수출입 총량과 총액은 각각 828만 톤과 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7%와 2.7%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424만 톤과 404만 톤이었으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07억 달러와 94억 달러에 달하였다. 1차산업 무역총액 중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3%를 넘어섰다.

수산물 수출 국가별로는 일본(37억 달러), 미국 (30억 달러), 아세안(28억 달러), 유럽연합 (23억 달러), 홍콩(20억 달러), 대만(17억 달러), 한국(16억 달러) 등의 순이다.

수산물 수입 국가별로는 러시아(15억 달러), 아세안(13억 달러), 미국(12억 달러), 페루(8억 달러), 캐나다(6억 달러), 칠레(5억 달러), 뉴질랜드(4억 달러) 등의 순이다.

지역별 수산물 수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푸젠(59억 달러), 산둥(47억 달러), 광둥(32억 달러), 랴오닝(27억 달러), 저장(19억 달러), 하이난(5억 달러), 광시(4억 달러), 장쑤(4억 달러), 허베이(3억 달러), 후베이(3억 달러), 장시(2억 달러), 지린(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일반무역 수출 품목에서는 새우류(19억 달러), 패류(17억 달러), 붕어(12억 달러), 장어(9억 달러), 게류(9억 달러), 해조(5억 달러), 민물가재(3억 달러), 부세(3억 달러) 등이다.

II. 중국 수산업의 추진 동향

1. 중앙정부 추진 동향

- 2017년 1월, 중국 농업부는 “전국 수산업 발전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

면, 중국 수산업은 혁신·조화·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 이념을 구축하고, 품질을 제고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줄이고, 소득을 올리고, 친환경발전을 추진하고, 어민의 소득을 올릴 전망이다. 또한, 건강양식·적정어획·보호자원·산업발전의 방향으로 수산업의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수산업의 생산표준화·친환경화·산업화·조직화·지속 가능한 발전의 수준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의 품질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발전 목표는 2020년까지 수산품의 생산량을 6,600만 톤으로 유지하고, 해양어획생산량을 1,000만 톤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산업의 총생산을 14,000억 위안으로 성장시키고, 1차산업 중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제고했다.

친환경발전 목표는 해양어획기선의 수량과 출력을 각각 2만 척과 150만 킬로와트(kw)로 낮췄고, 80개 국가급 해양목장시범구, 550개 이상 국가급 수산자원보호구, 80개 이상 성(省)급 수상생물자연보호구 달성목표를 설정했다.

품질 목표는 2,500개 이상 수산품 건강양식시범장, 50개 이상 건강양식시범현(縣), 양식 수산면적의 65%를 차지하는 건강양식시범구역을 설정하고 산지 수산품의 검역 합격률은 98% 이상 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어민 소득 목표는 1일당 순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증가한 21,000위안으로 제시했다.

<표 1> 수산업 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지표	2015년	2020년
수산업 경제	수산업 생산액(억 위안)	11,329	14,000
	수산업 증가치(억 위안)	6,416	8,000
	수산업 2차, 3차산업 생산액의 비중(%)	48.6	50이상
	수산물 수출입액(억 달러)	203	200
어민 소득	어민 1인당 순소득(위안/년)	15,595	21,000
산품 공급	수산물 생산량(만 톤)	6,700	6,600
	해양어획량(만 톤)	1,315	≤1,000
	원양어획량(만 톤)	219	230
	해수양식면적(만 헥타르)	232	220
	건강양식시범면적의 비중(%)	45	65
	산지 수산품의 검역 합격률(%)	98	≥98
자원보호	12M 이상 해양어획기선의 수량(척)	65.398	57095
	12M 이상 해양어획기선의 출력(킬로와트)	11,173,058	9,822,229

자원보호	국가급 해양목장시범구(개)*	20	80
	국가급 수산자원보호구(개)	492	550
	성급 수생생물자연보호구(개)	75	80
과학기술	과학기술 기여율(%)	58	63
	신품종(개)*	68	50

자료: 全国渔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2016-2020)

주: *은 누적값임

- 발해, 황해, 동해, 남해, 흑룡강(黑龙江)-송화강(松花江)-요하(辽河) 유역, 황하(黄河)-해하(海河) 유역, 장강 유역, 주강(珠江) 유역, 신장(新疆) 및 칭장고원(青藏高原) 등 10개 지역의 수산업발전과 생태보호 계획을 세운다.

● 발해지역

요동만(辽东湾), 발해만(渤海湾), 내주만(莱州湾)을 바탕으로 특색산업지구, 콜드체인물류와 수산물가공기지를 세우고, 기존 어항의 등급을 올리고, 환발해 어항 경제군(经济群)을 형성하고, 증식·방류를 확대하고, 해양목장의 건설을 강화하고, 발해의 중요 수산업 수역의 생태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킨다.

● 황해지역

요동반도(辽东半岛), 산둥반도(山东半岛)와 장쑤 북부 연해 지역을 바탕으로 수산물 생산, 콜드체인물류와 가공수출기지를 형성시키고, 새로운 어항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환황해 어항 경제군을 건설하고, 황해 북부, 교동반도, 해주만의 3대 해양목장시범구를 확립하고, 황해 북부, 석도(石岛)어장, 여사(吕泗)어장의 생태환경을 보호한다.

● 동해지역

상하이자유무역구, 주산군도(舟山群岛) 신규, 푸젠자유무역구를 바탕으로 수산물 생산, 원양 수산물 심층 가공, 수산물 가공 수출 단지와 콜드체인물류기지를 건립하고, 어항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태풍의 대비 능력을 제고시키고, 저장과 푸젠 연해 어항 경제군을 건설하고, 주산군도, 남지열도(南麂列岛), 평담도(平潭岛) 등의 중점 해양목장시범구를 점진적으로 형성시킨다.

● 남해지역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광둥자유무역구를 바탕으로 광둥 동부 연해, 광둥 서부 연해, 환북부만(环北部湾)의 콜드체인물류와 수산물수출가공기지를 설립하고, 어항의 배치 수량을 확

대하고, 광둥 연해, 북부만, 해남도 어항 경제권을 조성하고, 광둥 동부 근해, 주강구, 광둥 서부 근해, 북부만과 해남도 등 지역의 해양목장시범구를 형성시킨다.

● 흑룡강-송화강-요하유역

요하구(辽河口), 압록강(鸭绿江), 송화강(松花江), 두만강(图们江),嫩江(嫩江), 목단강(牡丹江)을 바탕으로 우세산업지대와 동북아의 수산물가공수출기지를 건설하고, 흑룡강(黑龙江),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흥개호(兴凯湖), 송화호(松花湖) 등 지역의 특색 어유자원과 생태환경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 황하-해하유역

우세산업지대를 설립하고, 황하, 동평호(东平湖), 백양정(白洋淀), 밀운수고(密云水库), 소랑저수고(小浪底水库) 등 지역의 생태환경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증식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 장강유역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강회평원(江淮平原), 강한평원(江汉平原), 파양호(鄱阳湖), 동정호(洞庭湖), 삼협고구(三峡库区), 산천분지를 바탕으로 우세산업권을 구축하고, 운귀고원과 서남지역 하천의 특색어업을 발전시키고, 장강 유역의 특유 어류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강, 파양호, 동정호, 홍택호(洪泽湖) 등 지역의 수생생물자원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삼협고구, 단강구구고(丹江口库区), 천도호(千岛湖) 등 지역의 생태어장을 조성한다.

● 주강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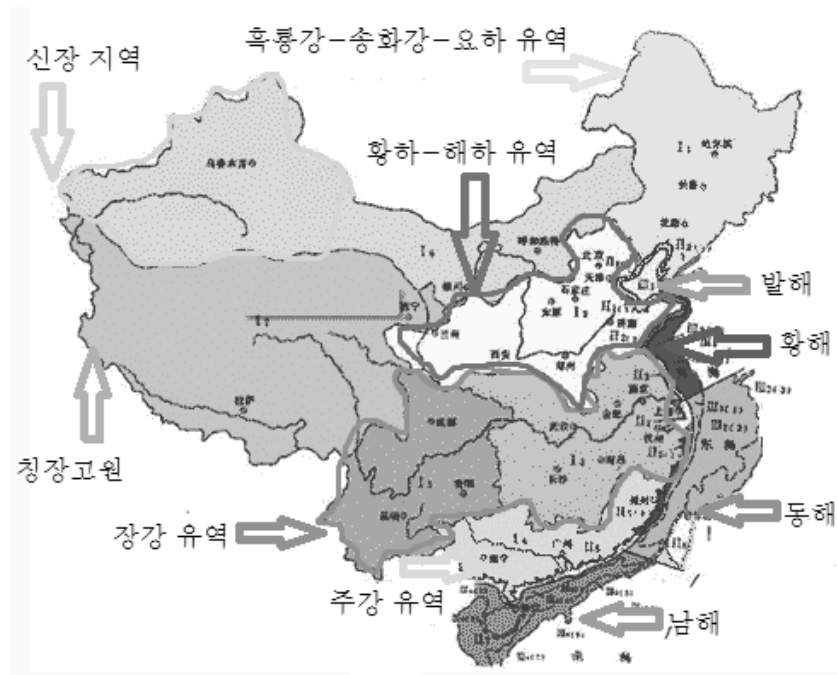
서강(西江) 유역을 바탕으로 우세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서강 유역의 콜드체인물류와 수산물수출가공기지를 설립하고, 증식·방류를 증가시키고, 자연보호구와 어류자원보호구의 건설을 강화한다.

● 신강지역

냉수어류개발을 위주로 신강 북부와 토종어류개발을 위주로 신강 남부를 바탕으로 특색경제수산업경제지대의 설립을 추진하고, 일리하, 탑리목하(塔里木河), 새리목호(赛里木湖) 등 지역의 자원과 생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칭장고원

삼강원(황하-장강-난창강: 三江源) 지역의 생태환경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삼강원, 청해호(青海湖), 아로장포강(雅鲁藏布江), 납살하(拉萨河) 등 유역의 수계생태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그림 5> 중국 수산업 10대 지역 배치도

자료:百度图片

2. 지역별 추진 동향

1) 장쑤 지역

- 2017년 2월 6일 장쑤성 정부는 “장쑤성 13차 5개년 수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을 통해서 현대수산업 강성(強省)의 목표를 세우고, 수산업 공급 측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수산업의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현대 수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생태환경, 첨단기술 장비, 융합의 1차·2차·3차 산업, 부유한 생활수준의 수산업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2020년까지 장쑤성의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품을 공급하고, 수산업의 장비수준과 조식시스템을 제고하고, 수산업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수산업의 종합관리와 안전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어획량을 제한하고, 수생생물자원보호와 회복 능력을 강화시킨다.

수산업 생산액은 3,900억 위안이다. 그 중 1차 산업 수산업 생산액이 1,800억 위안, 2차·3차 산업 수산업 생산액이 2,100억 위안이다. 향후 2차·3차 산업이 수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제고하며, 어민 1인당 순소득이 3만 위안을 달성할 계획이다.

2) 산둥 지역

- 2017년 7월 27일 산둥성 정부는 “해양 목장 건설 계획(2017-20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단기 목표는 2020년까지 해양 목장의 수산물 생산량이 452만 톤에 달하게 하는 것과 해양 목장의 수산물 생산액, 산업체인 총액이 950억, 3,000억 위안으로 2016년 대비 25%, 60% 증가시키는 것이다.

산업 발전 배치 측면에서 수역의 자연 생태, 어업의 산업 특징 등 요인에 근거하여 목장의 특색과 유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목장의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1체(一体), 2대(两带), 3구(三区), 4원(四园), 다점(多点)”의 공간 구조를 구축한다.

“1체”는 인공 어초 주체구이다.

“2대”는 해안(滨岸) 관광 어업 지대(地带)와 이안(离岸) 레저 낚시 지대이다. “3구”는 황하 삼각주(동잉) 해역 일반 패류 양식구, 산둥반도 동북부(옌타이·웨이하이) 해역 해진(海珍)품 양식구, 산둥반도 남부(칭다오, 르자오) 고부가가치 패류 양식구이다.

“4원”은 라이저우(萊州)만 해안 습지 생태원, 옌타이-웨이하이(烟威) 근해 패류와 조류(藻類) 생태원, 산둥반도 동부(룽칭) “해양 채소” 생태원과 하이저우(海州)만 보호 생태원이고, “다점”은 해역의 자연 조건과 정비 유형 배치를 근거하고, 각종 정비형 해양 목장 건설을 의미한다.

3) 랴오닝 지역

- 2017년 9월 26일 랴오닝성 정부는 “해양 주체 기능구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해양 개발 강도는 1.1%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 해안선 보유율은 35% 이상을 넘기며, 개발 금지 지역의 면적은 랴오닝 해역 면적의 11.3% 이상에 달하게 하며 개발 금지 지역 내 섬의 개수는 78개가 넘고, 해역 우수(Ⅰ급과 Ⅱ급) 수질의 비중은 82%에 달하게 한다.

최적화 개발 지역은 현재의 개발·이용 강도가 높고, 자원의 구속력이 강하며,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해역이다. 주로 다롄(大连)시, 잉커우(营口)시, 판진(盘锦)시, 진저우(锦州)시, 후루다오(葫芦岛)시 등 일부 보하이(渤海) 해역이 포함된다.

개발 제한 지역은 대규모 또는 고강도 개발은 제한하지만 해양 어업 생산능력과 생태 서비스 기능을 제고시키는 개발은 허락된 해역이다. 해양 수산업보장지역은 주로 다롄시, 진저우시, 후루다오시 등 4개 해역이 포함되고 해양 생태 기능구는 주로 다롄시, 단둥(丹东)시, 잉커우시, 판진시 등 10개 해역을 포함한다.

개발 금지 지역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대표적인 해양 생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해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6개 국가급과 성(省)급 해양 자연 보호해역이 포함된다.

II. 중국 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중국 수산업의 문제점

1) 수산물 품질 안전 우려

- 1978년 이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 공장의 오폐수와 도시 주민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화학비료, 농약과 생활쓰레기 등이 아무런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되었다. 공업폐수와 농약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중금속, 유해물질이 하천과 바다에 흘러들어 수생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축적량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2) 양식업의 약품 과다 사용

- 현재 대부분의 양식업자들이 독성이 강한 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산용 약품을 적게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식 어패류의 유해물질 함량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3) 우량양식품종 보유 부족

- 새로운 수산업 품종 연구와 개발의 한계로 인한 우량양식품종의 보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품종의 질병문제가 지속되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2. 중국 수산업의 해결방안

1) 수산물 품질 중시

- 수산품의 농약과 중금속 축적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엄격한 수산물 검역규정을 통해서 어패류 체내 농약 축적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산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역과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업의 품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양식업 약품의 안전성 강화

- 수산용 약품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친환경 약품을 개발해야 한다.

3) 양식품종의 개량 추진

- 우량양식품종을 보급하고 기존 품종에 대하여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발병률이 높고 경제적 효율이 낮은 품종은 점차 도태되기 때문에, 양식하기 쉽고 경제적 효율이 높은 품종에 대해서 광범위한 보급을 실시한다.

Ⅲ.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충남도는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 2013년 “해양건도(海洋建道), 2014년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동안 환황해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충남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건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 충남도의 “해양건도”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중국내 환황해 지역인 산둥과 랴오닝 지역 등의 주요한 새로운 경제 성장방향은 주로 해양경제를 비롯한 남색(藍色)산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있는 해양산업의 우세를 발휘하고 중국의 해양발전전략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에 있는 해양수산관련 기관과 단체가 산둥성 남색반도경제구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교류·연구 플랫폼을 마련하고 수산물 관련 현지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품목 개발과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충남 연해지역 7개 시·군의 특색 있는 수산품에 대해 대중국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국제어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충남 수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국 등에서 인기가 있는 김을 한류 마케팅과 연계해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전자상거래플랫폼(타오바오닷컴(淘宝网), 징둥닷컴(京东网))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젊은층에 충남 해산물의 친환경, 고품질 이미지를 제고한다.

넷째, 충남 수산물 가공업체가 중국 현지 판매업체와 협력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 업체

가 수산물 생산과 가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국의 파트너가 마케팅의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연해안지역 시군과 협력해 중국의 연해안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충남도는 중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약 1/3을 생산하고 있는 산둥반도 지역과 해양수산 기술과 정보 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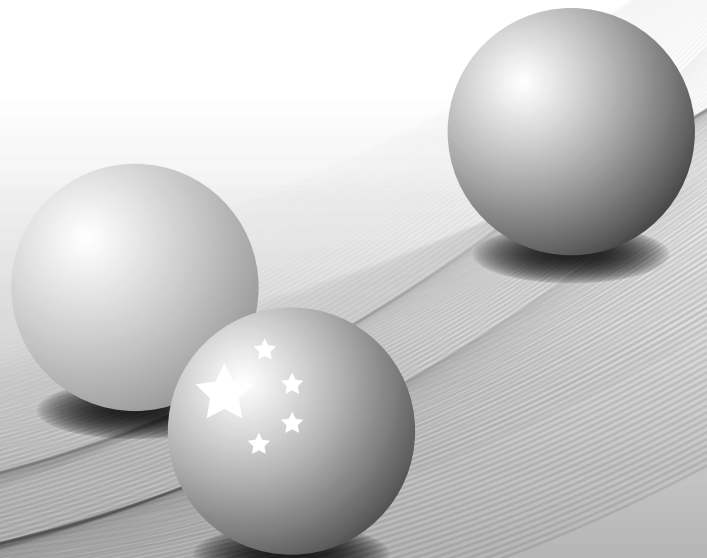
江苏省人民政府(2017), “江苏省“十三五”渔业发展规划”.
辽宁省人民政府(2017), “辽宁省海洋主体功能区规划”.
农业部渔业渔政管理局(2017), 中国渔业统计年鉴2017, 中国农业出版社.
农业部(2017), “全国渔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2016-2020)”.
山东省人民政府(2017), “山东省海洋牧场建设规划(2017-2020年)”.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산둥·장쑤·광둥, 3개 한중산업단지 승인
- ▶ 2. 징진지, 에너지 협동 발전 행동 계획 실시
- ▶ 3. 산둥성, 식량 생산기능구와 중요 농산물보호구 구축
- ▶ 4. 랴오닝성 선양시, 농업 현대화 건설 업무 방안 발표

비웨이닝·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산둥·장쑤·광둥, 3개 한중산업단지 승인

- 2017년 12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산둥성의 한중(옌타이)산업단지, 장쑤성의 한중(옌청)산업단지, 광둥성의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하였다.

중앙정부의 승인문에 따르면, 3개 한중산업단지는 한국에 대한 종합 협력 우세를 발휘하고, 한중 지방 경제 협력과 첨단산업 협력의 신고지(高地)를 구축하고, 한·중을 연결하는 발전전략을 활용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공동 건설하고, 무역과 투자협력의 선행구(先行區)를 심화시킨다.

- 옌타이(煙台)시 한중산업단지는 옌타이시의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1원 3구(一園三區)”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계획 면적은 398km²이지만 초기에는 32km²의 토지만 조성된다. “1원(園)”은 한중(옌타이)산업단지이고 “3구(區)”는 제조산업구, 현대물류구와 현대서비스업 집결(集結)구를 의미한다.

제조산업구는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煙台經濟技術開發區)와 옌타이첨단기술산업개발구(煙台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기반해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 전자정보업, 해양공학 및 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신에너지자동차단지, 한중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단지, 한중스마트산업단지, 한중해양장비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현대물류구는 옌타이보세항구(煙台保稅港區), 옌타이펑라이공항(烟台蓬萊机场), 옌타이항서항구(西港區)에 기반해 상무(商貿)물류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등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옌타이국제종합물류단지, 국제전자상거래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집중적으로 구축한다.

현대서비스업 집결구는 옌타이 동부해양경제신구에 의탁하면서 의료건강산업, 실버산업, 금융보험업, 문화창조업, 관광레저산업 등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한중생명과학산업단지, 한중문화산업단지 등 특색 단지를 구축한다.

한중(옌타이)산업단지의 7개 협력육성산업은 주로 ‘인터넷+’산업, 스마트제조산업,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 생명과학산업, 금융서비스산업, 물류유통산업과 문화창조산업을 포함한다.

- 옌청(鹽城)시 한중산업단지는 ‘1원(園) 3구(區)’로 구분되며 ‘1원(園)’은 한중(옌청)산업단지이고 ‘3구(區)’는 핵심(核心)구, 주체(主體)구, 연동(聯動)구이다. 핵심구와 주체구 계획면적은

210km²이고 이 가운데 옌청경제기술개발구, 성남신구와 따평항경제구는 각각 100km², 40km²와 70km²이다.

핵심구는 국가급 옌청경제기술개발구이다. 옌청경제기술개발구(盐城经济技术开发区)는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인터넷+' 산업, 스마트제조산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주체구는 성남신구(城南新区)와 따평항(大丰港)경제구이다. 성남신구(城南新区)는 건강미용산업, 빅데이터산업 등을 중점으로 구축한다. 따평항경제구(大丰港经济区)는 중형장비제조산업, 현대화 서비스업 등을 중점으로 구축한다. 또한, 연동구(聯動區)는 옌청 시역(市域)의 10개 성급(省級) 이상 개발구 등을 포함한다.

한중(옌청)산업단지의 10개 협력육성산업은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인터넷+' 산업, 스마트 장비제조산업, 태양광발전산업, 국제전자상거래산업, 건강미용산업, 빅데이터산업, 현대화서비스업, 중형첨단장비 제조업이다.

- 후이저우(惠州)시 한중산업단지는 '1원(園) 2플랫폼(平台) 다구역(多區)'로 구분된다. '1원'은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이고 '2플랫폼'은 환다아완신구(環大亞灣新區)와 중카이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仲愷高新區)를 포함한다. 다구역은 주로 주삼각국가자주혁신시험구(珠三角國家自主創新示範區), 중카이국가급첨단기술개발구의 첨단제조집결구(高端製造集中區), 통후생태스마트구(潼湖生态智慧区)의 혁신과 본부경제구(創新和總部經濟區), 한중과학기술협력구, 다아완화학공업협력구(大亞灣化學工業合作區), 양항종합보세구(兩港綜合保稅區) 등을 포함한다. 계획면적은 359.5km²이고 이 가운데 중카이첨단기술개발구, 후이난첨단과학기술단지와 동강첨단과학기술단지는 각각 336.5km², 8.5km², 14.5km²이다. 초기 한중산업단지는 24.8km²이었다.

다아완(大亞灣)신구는 다아완석유화학단지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후이저우공항, 후이저우항을 바탕으로 공항경제구, 항만경제구, 현대물류단지를 건설하며, 해양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유람선관광, 과학기술금융, 문화창조 산업 등을 크게 발전시킨다.

중카이(仲愷)첨단기술개발구는 주삼각국가자주혁신시험구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을 집결시키고 한국과 과학기술협력을 심화하고, 통후과학기술혁신창조단지, 한중산업단지를 계획·건설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인터넷, 신에너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현대장비제조업 등을 발전시킨다.

한중(후이저우)산업단지의 10대 협력육성산업은 선진스마트제조산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와 장비제조산업, '인터넷+' 산업, 에너지 절약·환경보호산업, 현대물류산업, 해양산업, 문화창조산업, 미용건강산업, 현대서비스업 등이다.



<그림 1> 중국내 3개 한중산업단지 배치도

2

징진지, 에너지 협동 발전 행동 계획 실시

- 2017년 11월 11일,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3개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징진지 에너지 협동 발전 행동 계획(2017-202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에너지시설협동, 에너지관리협동, 친환경발전협동, 에너지정책협동 등 분야별 협동 임무를 제시했다.

징진지 지역은 에너지 시설 일체화를 방향으로, 시장 건설 일체화를 근본으로, 체제기제 과학기술 혁신을 동력으로 3개 지역의 비교 우세를 발휘하고, 지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일체화 신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저탄소, 안전·고효율의 현대 에너지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 **에너지 시설 협동 측면**

전력 일체화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전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석유-가스(油气) 일체화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청결 난방의 공급 수준을 제고시킨다.

- **에너지 관리 협동 측면**

석탄 소비량을 대폭 감소하고, 겨울철 청결 난방과 민용 석탄(散煤)의 관리를 추진하고, “석

탄금지지역(禁煤区)”의 건설 임무를 완성하고, 전통 에너지의 청결화 보수를 추진하고, 석탄·전력산업의 낙후 생산설비를 교체한다.

● 에너지 친환경 발전 협동 측면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추진하고, 장자커우(张家口) 재생에너지 시범구를 구축하고, 충리(崇礼)의 저탄소 동계올림픽 지역을 건설하고, 징진지 지역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한다.

● 에너지 정책 협동 측면

징진지 에너지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고, 청결한 에너지의 개발·사용, 석화(石化)에너지의 청결과 고효율 사용, 전력시스템 조절 능력의 제고, 화력발전소의 개조, 석탄산업의 공급과 잉해소, 농촌지역의 석탄 에너지를 가스 에너지(煤改气)로, 석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煤改电)로 전환하는 인프라 투자 등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림 2> 징진지 지역의 태양광발전소(좌)와 풍력발전소(우)

자료:百度图片

3

산동성, 식량 생산기능구와 중요 농산품보호구 구축

● 최근, 산동성 정부는 “식량 생산기능구와 중요 농산품보호구의 확정 업무에 관한 실시 의견”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라서, 2019년까지 산동성 지역 내 5,200만 무(1무=667㎡)의 식량 생산기능구(밀 5,100만 무, 옥수수 4,500만 무, 벼 100만 무)와 400만 무의 목화 생산 보호구의 확정

임무를 완성시킨다.

● 확정 조건

좋은 수토(水土)자원의 조건과 경사 15도 미만의 영구적인 절대농지(永久基本农田)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평원지역 토지의 집중 면적은 500무 이상, 구릉지역은 50무 이상으로 규정한다. 농지의 관배수(灌排水) 공사 등 농업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한다. 또한, 퇴경환림(退耕还林), 퇴경환호(退耕还湖) 등 시험지역 내 토지가 제외되어야 한다. 식량과 주요 농산품의 재배 역사를 계승하고 최근 3년 동안 재배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 정책 지원

각종 사회자본의 투입을 격려하고, 친환경 생태 방향으로 농업보조제도를 건설하고, 각종 농업 관련 자금을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금융 지원 정책을 혁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량 생산과 경영의 대출 모델을 모색하고, 소액 대출 보증 모범 제도를 심화하고, 농산품 가격과 소득의 보험제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농업 보험의 보급을 추진한다.

<표 1> 산둥성 식량 생산기능구와 중요 농산품보호구의 확정 목표

지역	양식 생산기능구				중요 농산품 생산보호구	
	면적(만 무)	밀(만 무)	옥수수(만 무)	벼(만 무)	면적(만 무)	목화(만 무)
지난(济南)	265	265	265		10	10
칭다오(青岛)	300	300	300			
쯔보(淄博)	135	135	130			
짜오좡(枣庄)	185	185	140			
둥잉(东营)	120	100	90	20	80	80
옌타이(烟台)	175	175	170			
웨이팡(潍坊)	450	450	430		15	15
지닝(济宁)	490	450	350	40	50	50
타이안(泰安)	240	240	230			
웨이하이(威海)	70	70	65			
르자오(日照)	90	90	80			
라이우(莱芜)	10	10	10			
린이(临沂)	465	425	345	40		

더저우(德州)	615	615	580		40	40
랴오청(聊城)	510	510	480		15	15
빈저우(滨州)	305	305	295		100	100
허저(菏泽)	775	775	540		90	90
산둥성	5200	5100	4500	100	400	400

자료:《关于做好粮食生产功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划定工作的实施意见》

4

랴오닝성 선양시, 농업 현대화 건설 업무 방안 발표

- 최근, 랴오닝성 선양(沈阳)시 정부는 “농업 현대화 건설의 업무 방안(2017-2020)”발표를 통해 향후 3년 동안 주변 1시간 경제권내 4개 특색 도시 농업 명품 노선을 구축한다고 하였다.

선양시는 4환(環)고속도로를 따라 도시 순환 농업산업지대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 21개 도시농업시범단지 프로젝트, 20개 레저농업채취원(采摘园), 5개 고표준 온실 프로젝트, 5개 레저농업특색마을, 5개 전국레저노업과 향촌(乡村)관광시범구,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공간구조

이 “방안”은 명품, 특색, 생태와 레저관광 농업을 주축으로 도시농업시범단지, 고표준온실, 레저농업채취원, 레저농업관광마을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부의 생태관광, 남부의 레저채취, 서부의 과학보급전시, 북부의 아이디어체험을 주도하는 도시농업관광구, 생태지대와 레저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 살기 좋은 향촌 건설

‘4치(4治: 생활쓰레기, 오수, 분변, 벼짚)’프로젝트, ‘3개(3改: 도로, 녹화, 화장실)’프로젝트와 ‘2화(两化: 미화(美化), 양화(亮化))’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한다.

2020년까지 85% 이상 농촌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율, 11.25만 명 농촌 인구의 음수안전 프로젝트, 4,000km의 신축 마을 도로, 40개 살기 좋은 시범향진(乡镇)과 550개 살기 좋은 마을 등을 달성목표로 설정했다.

● 농산물 품질과 식품 안전 수준 관리

2020년까지 지역의 야채, 축산품과 수산품의 품질 검역 합격률을 각각 96%, 98%와 96% 이상으로 달성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제로 성장으로 실현한다.

● 생태 프로젝트 건설

2020년까지 3.3만ha의 인공림, 200ha의 산림 보호, 1,333ha의 산림 육성, 20만ha의 중점 생태공익림(公益林), 22.1만ha의 임지 보유량, 29%의 산림률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

참고문헌

国务院(2017), “国务院关于同意设立中韩产业园的批复”.

北京市·天津市·河北省人民政府(2017), “京津冀能源协同发展行动计划(2017 - 2020年)”.

山东省人民政府(2017), “关于做好粮食生产功能区和重要农产品生产保护区划定工作的实施意见”.

沈阳市人民政府(2017), “推进农业现代化建设工作方案(2017 - 2020年)”.

中韩(惠州)产业园(<http://ckip.huizhou.gov.cn/>)

烟台中韩产业园(<http://www.ytckip.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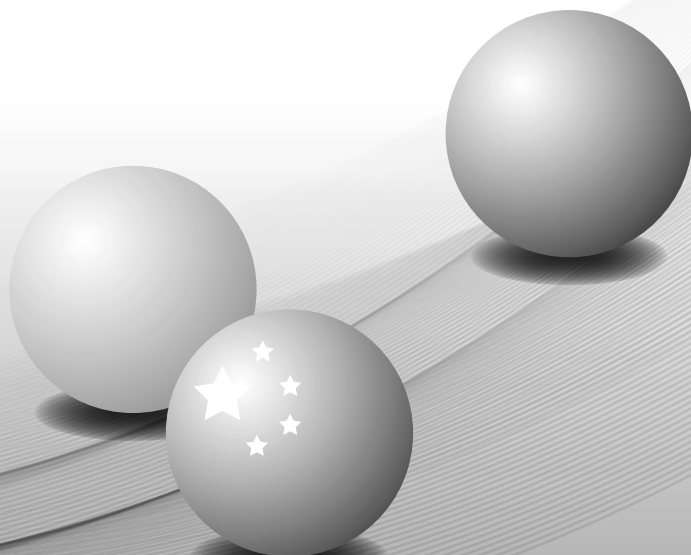
盐城中韩产业园(<http://www.ycckip.gov.cn/>)

현대중국의
이해

9. 대약진과 대기근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마오쩌둥은 원래사 회주의 건설을 진하기 전에 과도단계로 20-30년 정도의 “신민주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류샤오치의 주장에 동의하고 자신도 그 같은 견해를 수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정권 출범 다음 해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내 정치사회적 조건이 안정되고 공고해지자, 자신감이 넘치고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과도단계로써 “신민주주의 단계”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결국 이를 폐기하고 직접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채택하고 소련보다 더 빠르게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단기간 안에 영국과 미국의 생산량까지 따라 잡고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대약진(大躍進)”과 인민공사화 운동은 참담하게 실패했다.

중국정부의 공식 관방 기록에서도 “대약진”과 인민공사화 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탐색하는 과정중의 엄중한 실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객관적 경제발전 규율을 무시하고 주관적 의지와 노력의 영향을 과대평가했고, 과다지표, 맹목적 지휘, 허풍과 과장풍조 및 공산풍(共产风) 등의 착오가 난무한 결과 공업과 농업 생산이 극심하게 파손되었다. 또한, 국민경제에서 축적과 소비간의 비율 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파손되어 인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1. "신민주주의" 노선의 폐기 배경

- 중공 정권 출범 준비 중이던 1949년 7월 4일에 마오쩌둥 본인이 중앙당교 제1회 졸업식에서, “20년 후 우리의 공업이 일정한 수준까지 발전한 후 상황을 보면서 사회주의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949년 9월 29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정치적 토대는(사회주의가 아닌)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마오는 이 회의에서도 한 대표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회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략 20-30년”이라고 대답한 바도 있다.

신생 정권의 기본이념과 기본정책은 마오쩌둥이 제기한 “신민주주의론”과 “연합정부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전문에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정치적 토대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병행, 노동과 자본의 공동이익, 도시와 농촌의 상호부조, 국외의 교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중공이 민주당파와 전국 각 계에 “사회주의”를 공동강령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양보를 의미했다.

- 마오쩌둥이 180도 입장을 바꾸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였다. 왜 그는 당초의 “신민주주의 단계”라는 구상을 바꾸고 “대약진(大躍進)”과 인민공사화 운동을 조급하게 밀어부쳤을까? 마오의 생각을 바꾼 그 자신감의 배경은, 첫째, 항

미원조전쟁의 승리로 인한 자신감 고조와 공산당 독재체제의 공고화, 둘째, 국방역량의 강화, 토지개혁을 포함한 각종 사회개조운동의 성공적 추진, 재정상황 호전, 국영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 요소 증가, 셋째, 자본주의 진영 내 모순 증가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53년 6월 15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과도기의 총노선과 총임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란 표현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어떤 사람은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혁명적 전환을 모르고, 그들의 신민주주의를 고집하며 사회주의 개조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우경(右傾)적 착오이다.” 1954년에는 자신이 주장했던 “과도기로서의 신민주주의 단계론”을 완전히 외면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공동강령”과 함께 “신민주주의” 노선을 폐기해 버렸다.

2. 대약진운동 추진과정

- “대약진(大跃进)”운동은 1958~1960년 기간 중 중공이 전국 범위에서 추진한 극좌노선운동을 가리킨다. 이는 1957년 9월, 중공 8기 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이 1956년 경제공작 중 지나치게 조급해 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합리적 의견이었던 “반모진(反冒进)”정책을 비판하고, 농업 대약진의 실제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농업발전강요 14조(수정초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중공 8기 3중전회) 후에 중국 대부분의 성(省), 자치구(自治区) 당위원회는 각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회의정신을 관철할 것을 전달하는 한편 공농업 생산을 고조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어서 11월 13일에는 인민일보가 “전 인민이 떨쳐 일어나 40개조 강령을 토론하고 농업생산을 새로이 고조시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처음으로 “대약진”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 1958년 5월 5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공 제8차 전국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마오쩌둥이 제출한 “최선을 다해서, 보다 높게(高), 많게(多), 빠르게(快), 좋게(好), 절약하면서(省)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과 기본원칙을 정식 통과시켰다. 이 총노선의 기본정신은 낙후한 중국의 경제문화 상황을 가능한 조속하게 바꾸자는 것이었으나 경제발전의 객관적 규율을 무시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제8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회에서 국내 주요 모순이 이미 전변(轉變)되었다는 분석을 비판하고 중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모순은 여전히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회주의 노선과 자본주의 노선 간의 모순이라고 했다. 이는 마오의 사회주의 사회계급투쟁 문제에 대한 좌경이론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15년 또는 더욱 짧은 시간 내

에 주요 공업생산물 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한편, 저장(浙江), 간쑤(甘肅), 안후이(安徽), 윈난(云南), 광시(广西), 칭하이(青海), 허베이(河北), 광둥, 신장(新疆), 허난(河南), 산둥 등 성(省)과 자치구의 대표들이 해당지구 당조직 정풍 운동 과정에서 당내의 소위 “우파분자”, “지방주의분자”, “민족주의분자” 그리고 “우경기회주의분자”들에 대한 투쟁경과를 보고한 후, 수많은 지방의 중요 지도간부들을 “우파집단”, “우경집단” 또는 “반당집단”이라고 선포했다.

- 1958년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허베이성의 해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민경제계획과 당면한 공업생산, 농업생산, 농촌공작, 그리고 상업공작 등 문제를 토론하고, 일부 공업 및 농업생산 지표를 과다하게 확정했다. 특히, 철강 생산량을 전년도에 두 배인 1,070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선포했다. 즉, 전 당원과 전국 인민에게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을 진지하게 관철하면서, 15년 또는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주요 공업생산물 생산량 방면에서 영국을 초과하라는 지표를 확정했다. 이 회의 후에 중국 전국 각지에서 “대약진”열기가 달아올랐다.

이 회의에서 제2차 5개년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임무와 목표들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대약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8년 8월에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 확대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해(1958년) 강철생산량 지표를 그해 생산량(535만 톤)의 두 배인 1,070만 톤으로 정하고 이를 “대약진” 실현을 위한 주요 단계로 정했다.

- 또한 1958년 8월, 베이다이허 정치국회의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건립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전국 농촌에 보편적으로 인민공사를 건립한다고 결정했다. “결의”에서는 “인민공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점진적으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가장 좋은 조직 형식이다. 또한 중국이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이미 요원한 장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포함되었다. 이 회의 후에 중국 전국에 빠른 속도로 인민공사 설립 열기가 고조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고도생산 위성(高产卫星)을 부단히 쏘아대면서 허위과장 생산량을 떠벌이며 선전했다. 즉, “사람이 대답하게 시도하면, 토지는 크게 많이 생산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1무(亩=약 667㎡)당 생산량을 부단히 부풀렸다. 이 과정 중에 과대지표, 눈먼 지휘, 허풍 및 과장풍조와 공산풍(共产风) 같은 극좌노선과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공업분야에서는 연간 철강생산량 1,070만 톤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수 천만 명의 인구를 동원해 “전민 대 강철제련운동”을 추진하였고, 교통, 체신, 교육, 문화, 위생 등 산업분야에서도 전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크게 일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약진”을 추진했다.



<그림 1> 농민 대련강철(大炼钢铁) 장면

자료:百度图片

8월 상순에 마오쩌둥이 허베이, 허난, 그리고 산둥 등 성(省)의 일부 농촌을 시찰했다. 8월 9일, 마오가 산둥성 당지 책임자와 대규모 합작사(大社)를 건립·운영하는 문제에 관해 논하면서, “역시 인민공사를 운영하는 게 좋다. 그것의 좋은 점은 공업, 농업, 상업, 교육, 군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도하기에 편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이 신문에 보도된 후에 중국 전국에서 향(鄉)과 사(社)를 병합하여 공사(公社)로 전환하는 열기가 시작되었다.



<그림 2> 인민공사, 대약진,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 지지 시위에 동원된 농민들

자료:百度图片

- 한편, “대약진” 추진 배경에는 자신감이 증대된 마오쩌둥이 당시 사회주의 진영 내, 특히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의식하면서 이들 국가들에게 소련보다 빠른 중국식 사회주의 이행 및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대약진”운동 기간 중 가장 심각한 현상은 실사구시 정신에서 벗어나 과장하고 떠벌이고 허위보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위성”을 발사하기라도 한 것처럼 허풍과 과장하는 풍조를 조장했기에 “위성발사”에 비유되었다. 즉, 한 곳에서 1무(亩)에서 1만근의 식량을 생산했다고 떠벌이자 다른 곳에서는 너도 나도 과장하고 부풀려 발표했는데 어떤 곳은 1무당 12만근 생산이라는 황당한 숫자로 부풀려 발표하기도 했다. 마오쩌둥조차도 머리가 뜨거워지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이같이 황당한 허위과장보고를 믿고, 다른 지방 간부들을 독려했다.

허난(河南) 시핑(西平)현 평농업사(平农业社)가 평년 평균 생산량으로 1무당 2,000~3,000근인 밀 생산량을 7,320근 생산했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후베이(湖北) 마청(麻城)현 건국농업1사(建国农业一社)가 무(亩)당 벼 생산량 3만 6,956근, 광시(广西) 환장(环江)현 홍기공사(红旗公社)가 무(亩)당 13만 434여 근의 벼를 생산했다고 과장보고를 하며 기만 연출을 위한 전시용 경작지를 만들고 떠벌이며 선전했다.

심지어는 “무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어 나귀 두 마리로도 끌지 못한다.”는 과장 허풍을 공공연하게 보고, 발표, 선전했고 관방매체인 인민일보도 이를 보도했다.(人民日報, 1958. 9. 18)



<그림 3> 1무당 3만 6,900여근 생산, 천하제일의 농경지 출현을 보도한 인민일보 기사
자료:百度图片

- 당시의 중국 과학계에서도 이 같은 허위과장보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위성논문”을 발사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중국 과학계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첸쉐션(钱学森)이다. 중국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兩彈)을 개발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공헌하여 국민 영웅 과학자 지위를 누리던 그가 1958년 6월 12일자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토지가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생산량이 최고점에 도달했는가? 과학적으로 계산한다면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농업생산의 한계는 매년 단위 경지면적당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이 태양광 에너지를 농산품으로 환산한다면 현재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당장 이 자리에서 계산해 보면, 1 무(亩)의 토지에 매년 내리찍는 태양광 에너지 중 30%가 식물을 위해 이용되는 부분이고, 식물은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속의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들어 공급하면서 발육, 성장한다. 이 중 이용가능한 1/5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꾼다면, 벼와 보리의 연간 무(亩)당 생산량을 현재의 2,000여 근 또는 3,000여 근의 20여 배로까지 높일 수 있다!”

작가 우샤오보(吴晓波)는 당시 첸쉐선(钱学森)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첸쉐선의 논문은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더욱 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과학적 논증 근거를 제공했다. 이 문장이 발표된 후에 ‘식량위성’의 무 당 생산량이 수 천근에서 대번에 수 만근으로 솟아 올랐다. 따라서 첸쉐선은 응당 1958년에 발표한 그 두 편의 논문과 그로 인해 조성된 후과(後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큰 인물일수록 그 책임도 큰 것이다.”



<그림 4> 마오쩌둥(좌)과 첸쉐선(우) 회담

자료:百度图片

- 당시의 “대약진”은 객관적 규율을 위배했고, 사회생산력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정상적 생산질서를 교란시켰고, 국민경제 각 부문 간 축적과 소비 비율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경제업무 중 조급하고 무모하게 추진하는 좌경 착오를 야기했고,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좌절시켰고, 인민생활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다.

“대약진”과 함께 추진된 농촌인민공사화운동도 농업발전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농촌인민공사화운동의 특징은 “일대이공(一大二公)”, 즉, 첫째, 큰 규모이고(일반적

으로 2000호 정도), 둘째, 공유화 정도가 높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기층 생산단위는 자주권이 없었고, 생산과정 중 책임제도가 없었고, 분배는 평균주의를 실행했다. 이는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극심하게 손상했다. “대약진”과 인민공사화운동으로 인한 좌경착오 풍조의 범람은 1959년~1961년 양식공급 곤란과 대기근을 초래했다.

- 중공은 농민을 기초로 혁명에 성공하여 대륙의 권력을 거머쥐었으나, 혁명 이후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해 왔다. 오늘까지도 확대 심화되고 있는 농민공(農民工)과 삼농(三農)문제의 근원도 중공이 채택 고수하고 있는 공업화와 부국강병 정책기조가 도농이원구조 하에 농민에 대한 수탈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에 있다.

- 마오는 농민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 한편으로는 레닌의 말을 반복해 인용하며, “소생산자는 매일 매시 자발적으로 자본주의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농민은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를 대표하는 건 당이고 당을 영도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오는 스스로도 ‘사회주의 개조’가 농민의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 농민은 세계의 다른 지역 농민과는 달리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첸리췌(錢理群)은 이것을 “레닌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의 상호모순적인 길항”이라고 표현했다.

레닌은 “농민의 자발성은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농민에 대한 공산당의 인도와 농민의 자발적 경향과의 투쟁을 강조했다. 반면에, 농민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 포퓰리즘에 의지해야 했던 마오는 농민의 천성적 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믿음 또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마오는 “우리는 대중을 믿어야 하며, 또 당(黨)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당’의 유일한 대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러나 마오도 실제로는, 객관적 형세의 변화에 따라, 또는 자신의 주관적 필요에 따라서 양자 사이에서 동요했다. 1955년 당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합작화운동을 추진하고, 농민의 사회주의적 적극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했을 때는, “현재의 상황은 바로 대중운동이 지도부 앞에서 가고 있고, 지도부가 운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약진(1958-1960)과 인민공사운동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기근 시대에 농민이 개체경영을 요구했을 때에는 다시 방향을 바꾸고 뒤돌아서서 농민의 말을 들어서는 안되고 (농민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민 대중의 의견’과 ‘당의 지도’와 연관된 객관성을 소멸시키고 주관적 독단적 판단으로 대체했다.

- 량수밍(梁漱溟: 1893-1988)이 최고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오에 대해, “농민을 버렸다.”, “노동

자는 구천 위 하늘에 있고, 농민은 구천 아래 땅에 있다”, “노동자는 노동조합(工會)이 권익을 보호하는데 농민은 농회(農會)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마오의 아픈 곳을 찌른 것이었다.

마오는 평정심을 잃고 화난 어조로, “그가 공산당보다 더 농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건 황당하고, 마치 목수 앞에서 도끼질 하는 격이다.”라 말하고, 이어서 “국가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고 대인정(大仁政)을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농민 이익이 일시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채는 울음소리를 내면, 이는 중공업 건설을 하지 말란 것이고, 실제로 미제국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첸리쥔(錢理群), 연광석역, 2012: 84~85) 이후, 마오가 통치하는 중국에서 “농민의 생활이 힘들다”는 지적을 하려면, ‘미제국주의를 대변하는 반혁명분자’라는 모자를 쓸 각오까지 해야 했다. 1953년 마오는 애초에 “20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신민주주의 단계’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조속히 종결시키고, 이른바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했다. 사회주의 개조 총노선은 점진적으로 생산관계를 바꾸고 소유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소생산농업을 합작사의 집체경제로 개조하고, 자본주의 상공업은 사회주의 공사합영(公私合營)으로 개조하며, 수공업을 합작화로 개조하고, 생산수단 소유제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유제를 소멸시키고, 자본주의를 멸종시키며, 소생산도 멸종시켜 단일한 공유제 구조와 고도로 통일된 계획경제체계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 사회주의 개조의 두 날개라 부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합작화였고, 또 하나는 일괄 구매 및 판매였다.

1954년 수재(水災)의 영향으로 양곡생산이 줄었지만, 공업화 추진과 정전협정을 방금 마친 북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890만 톤을 초과 징수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식량난이 발생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한 부종병과 아사자가 발생했다. 많은 지방에서 밭가는 소를 잡아먹고, 양을 죽이고, 나무를 베는 현상이 빈발했고,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군중성(群衆性) 폭동이 빈발했다. (첸리쥔, 연광석역, 2012, 상: 80~83)

공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산품과 농산품의 가격차를 통한 농민 수탈이 필요했다. 1953년 일괄 구매 및 판매의 실시로 농민들은 토지 분배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에 토지를 다시 내놓는 꼴이 되었다.

● 마오가 말하는 대중정치 참여는 실제로는 대중적 계급투쟁을 발동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법제와 규칙을 짓밟는 ‘대중독재’를 초래한다. 그는 대중의 불만정서와 변혁요구에 대한 인도와 이용, 나아가 대중 역량의 동원과 조종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고수였다.

마오는 중농(中農)을 상중농(上中農), 즉 부유중농, 하중농(下中農)으로 나누고, “부유중농의 뒤에는 지주와 부농이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요구하고, 하중농과 빈농은 사회주의 발전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곧 부유할수록 자본주의를 원하고, 가난할수록 사회주의를 원한

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논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마오가 대표하는 중공과 중국 농민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마오와 중공을 이해하는데에도 관건이 된다. 농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마오는 왜 그렇게 늘 소란피우는 것을 좋아해서 농민들이 그냥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느냐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굶주리며 자란 농촌의 나이든 부녀가 마을 서기에게 속삭이듯 물었다고 한다. “마오 주석은 왜 그렇게 심지가 모질어서 보통사람들이 편하게 밥 먹도록 놔두지를 않는가요?”

- 고징수와 고비축을 한 첫째 이유는 수출을 위해서였다. 1959년 중국 전국의 양곡생산은 1957년에 비해 약 2,500만 톤 감소되었으나, 수출은 209만 톤에서 415만 7,500톤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제1차 5개년계획(1953-57) 기간 중 평균 수출량의 2배였다. 이 같은 대량 수출의 목적은 공업 특히 국방공업 발전 추진과 전쟁준비를 위한 대량의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원자탄 제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1959년 루산회의에서 펑더화이(彭德怀)를 비판 숙청한 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기근을 무시하고 계속 “대약진”을 추진한 결과 재난을 초래했다.

둘째, 대외원조를 위해서였다. 대기근이 가장 심각했던 1960년에 중공은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대외원조를 했다. 이 해에 아프리카 가나에 쌀 1만톤, 콩고에 밀 5,000톤과 쌀 1만톤, 알바니아에 식량 5,000톤을 원조했다. 1962년에는 중국의 대외원조 총량이 609억여 위안에 달했다. 이해에 중국내 식량이 부족해서 캐나다에서 대규모로 밀을 수입해 싣고 중국 국내로 오던 배가 태평양 상에서 중공 중앙의 전보를 받고 항로를 바꾸어 알바니아로 간 경우도 있었다. 중공의 대외원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소련과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었다.

셋째, 채무상환을 위해서였다. 당시 소련은 채무상환을 독촉하지 않았으나, 마오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 미리 갚자고 제기했다.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대략 10년 정도면 갚을 수 있다고 했으나, 마오가 “지금은 연안시기보다는 더 좋다. 허리띠를 더 조여 매고, 5년 내에 갚도록 하자”고 했다. 이는 더 많은 식량을 징수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농민이 굶어 죽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1959년 베이징시 시장이었던 펑진(彭真: 1902-1997)은 전국 전화회의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성(省)에서라면 한 개 성(省)의 문제이지만, 베이징에서라면 국가의 문제이다”라며, 각 지에서 베이징으로 식량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혁명전쟁 시절 농민과 농촌에 전방에 보낼 보급품의 소출을 요구했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구이저우성(貴州省)에서 약 5만 톤의 식량을 베이징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림 5> 대기근 당시 장면

자료:百度图片

- 1960년 6월, 국무원 재무판공실은 주요 도시의 식량 사정을 발표하면서, “베이징의 식량은 7일 정도 버틸 수 있고, 텐진(天津)은 10일, 상하이(上海)는 이미 바닥상태, 랴오닝성(遼寧省)의 10개 도시는 8일 정도 버틸 수 있으며, 만일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보고했다.

1961년 루산 공작회의에서 “농촌을 짜내어 중대형 도시를 보위하라”는 방침을 제출하면서, 농민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기조가 되었다. 1961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1,425억kg이었다. 이를 모두 농민에게 주어도 1957년 농민이 소비한 식량 총량 1,565억kg에 미달했으나, 이 중 192억kg을 징발해 도시로 보냈다. 식용유와 계란 등 기타 식품류의 징발과 분배도 비슷했다.

1960년에는 모든 계란을 징발하도록 했고, 이 중 80%는 수출하고, 20%는 내수용으로 사용했다. 내수용은 주로 도시에 공급할 것을 규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당시 재정부장은 “무산자계급 독재인데 무산자계급은 계란을 먹지 못하고, 노동자·농민 연맹인데 노동자·농민이 모두 계란을 먹지 못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 계란은 누가 먹었나? 당시에 이른바 특수공급 대상자였던 중공의 고급간부와 고급지식인들이었다.(錢理群, 연광석역, 2012, 상: 406~407)

- 광대한 면적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역 간, 도농 간, 소득계층 간 격차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격차의 확대는 사회불안과 정치적 위기상황의 돌발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중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예외 없이 유민(流民)의 무리에 의해 멸망했다. 유민이란 토지를 잃었거나 토지에 정착하지 못한 농민을 가리킨다. 이 유민집단은 생존 본능에 의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맹목적이며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조직화된 유민의 무리가 왕조를 멸망시킨 가장 극적인 사례는, 약 370년 전 중국 서북부지역에서 유민과 도적으로 구성된 기마부대를 조직, 지휘해 단 몇 개월 만에 명(明) 왕조를 멸망시킨 리즈청(李自成)¹⁾이 지도한 농민봉기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계기에 의해 이 유민집단이 조직화되면 이들은 간단한 구호나 뜬소문에도 쉽게 선동, 동요되며 막강한 파괴력으로 왕조까지 붕괴시킨다. 만일 중국에서 1976년과 1989년 천안문 소요사태와 같은 인민대중의 집단시위 사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이들 도시 내 유랑 이농민, 즉, 농민공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58~1962년 기간 중에 전개된 대약진 기간 중 우파로 몰려서 맞아 죽고 굶어 죽은 ‘비정상적 사망자’의 숫자가 중국 전국에 약 3,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짐작케 해주는 사례가 당시 허난성 신양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아래 [참고자료] 참고)

참고자료

허난성 신양지구의 참상

1958년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를 내세운 대약진이 시작되고, 과장 보고, 과다 지표, 극좌 구호, 강압적 명령 등의 바람이 중국 전국의 농촌을 휩쓸었다. 1959년 7월 장시성(江西省) 루산(庐山)에서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공 제8기 8중전회(1959.7.2~8.16) 이후에 반우경(反右倾) 투쟁이 전개되면서 이 같은 착오와 문제들이 더욱 격화되었다. 원래 루산회의에서는 대약진 운동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좌경노선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교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했으나 마오쩌둥이 대약진의 폐단을 비판한 평더화이(彭德怀)의 서신 내용을 본 후 분노하여, 평더화이 등을 정면 비판하면서 ‘반우파 투쟁’을 진행했고, 이는 극좌모험주의 노선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그 결과 중국 전국 농촌에 이전에 없었던 대기근이 출현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구가 “비정상 사망”, 즉 굶어 죽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허난성(河南省) 동남부 신양(信阳)지구의

1) 리즈청(李自成, 1606-1645)은 명(明)말 농민 봉기의 두목으로, 인촨(银川)에서 역졸(驛卒)로 지내던 명 崇禎 2년(1629년)에 첫 봉기 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고 세금을 면해 준다(均田免賦)”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연전 연승하며 1643년에 베이징 자금성에 입성해, 250년의 통치역사를 지닌 명조를 멸망시키고 황제에 즉위했으나, 당시 산해관을 지키던 명의 장수 우산궈(吳三桂)가 청병에게 산해관 문을 열어 주고 투항한 이후 전개된 전투에서 패한 후, 베이징성에서 철수했고, 그후, 1645년에 湖北省 通山縣 九宮山에서 지형 고찰 중 토착지주 사병들의 공격을 받고 전투중 사망했다.

참상이다.

1958년 11월에 허난성 미현(密县)에서 굶어죽은 농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부종병(浮腫病)에 걸린 자와 굶주리다 죽는 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후에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많은 촌락에 사람의 흔적이 없어졌고, 광산현 한 현에서만 2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참상도 있었다.(林蘊暉, 2008: 239) 그러나 그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양지구의 이 같은 참상은 비교적 일찍 폭로되었을 뿐이고, 당시 식량 부족과 아사자의 발생은 중국 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58~1962년 대약진운동 기간 중 중국 전국에서 소위 “비정상 사망자” 숫자가 약 3,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林蘊暉, 2008: 282)

그런데, 중공 중앙과 성위원회는 과다 생산목표를 책정하고, “식량을 숨기는 것은 반혁명”이라며 때리고, 조리 돌리고, 가두고, 집을 부수고, 가축을 뺏아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의 양식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뺏기고, 굶주리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부종병에 걸려 죽었다. 가축을 몰고 외지로 나가 유랑하는 농민들이 증가하자, 성(省)위원회는 촌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각 촌의 길목 입구 등에 보초를 세워 감시 및 통제했다.

참고문헌

- 알렉산더 판초프외·심규호 옮김(2017), 『마오저동 평전』, 민음사.
연광석외 역음(2014), 『전리군과의 대화』, 한울아카데미.
전리군(첸리쥔)·연광석 옮김(2012), 『모택동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상/하)』, 한울아카데미.
왕단·송인재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현이섭(2012), 『중국지(하)』, 인카운터.
마리-클레르 베르제르·박상수 옮김(2009), 『중국현대사』, 심산.
아마코 사토시·임상범역(2003),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일조각.
庞松著(2010), 『中华人民共和国史(1949-1956)』, 人民出版社.
彭德怀(2009), 『彭德怀自述』, 國際文化出版公司.
林蘊暉(2008), 『国史礼记-事件篇』, 东方出版中心.
王夢初(2008), 『大躍進親歷記』, 人民出版社.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25·26회 충청중국포럼

제25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

- 제25회 충청중국포럼은 지난 11월 29일(수)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이건웅 중국 전문 출판사 차이나하우스 대표이자 중국 전문 매체 차이나리뷰 발행인의 “사드 이후의 중국문화산업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충남도 미래정책과 이성일 한화해협팀장과 이정아 주무관, 기업통상교류과 최성민 중화권팀장, 김은숙 주무관과 마춘정 주무관, 해운항만과 최춘용 항만계획팀장과 이기세 주무관, 논산시 전략기획실 김관기 국제교류팀장, 최미연 주무관과 이금숙 주무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선묵 대외협력팀장과 박찬근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선문대학교 조운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건웅 대표는 중국의 문화산업 현황, 사드 이후의 중국 문화산업 규제와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림 1> 이건웅 대표 강연 모습

- 중국 문화산업 증가치는 2012년 1.8조 위안에서 2016년 3.0조 위안으로 5년간 연평균 약 13.7% 성장하였다. 2016년 기준 문화산업은 국내총생산액(GDP)의 4.1%를 차지하였다. 2002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출판 유통업, 출판 인쇄업, 도서의 합작 출판과 저작권 무역업, 광고서비스업과 관광서비스업 분야 등을 전면적 개방하고, 청각 제품의 유통, 공연장소 경영,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과 영화 제작 사업, 극장 건설 및 경영 분야 등은 일부만 개방

하고, 언론기관, 도서·신문·간행물의 출판과 발행 및 수입 업무, 각급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방송 채널 등의 분야는 개방을 금지하였다.

-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 한중 갈등이 증폭되면서 중국정부는 한한령(限韓令) 또는 금한령(禁韓令)을 실시해 한중 문화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한한령 내용으로는 한국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 "중국 정부의 규제는 포괄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아닐까?" 또한 "사드 이전에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문화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정책의 제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 해외 문화산업 규제 실행 정책을 보면, 2004년 '수입영상물 방영 및 제작관리 규정(TV분야)', 2012년 '수입영상물 편성 관리 규정(TV분야)', 2014년 '영상물 시청 단말기에 관한 개정 명령(온라인 분야)', 2015년 '수입영상물 관리 관련 규정 실천을 위한 통지(온라인 분야)' 내용 등의 공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와 2016년 <태양의 후예> 등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후에 해외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되었다.

중국 국내 온라인 규제 분야에서는 2017년 6월부터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규정한 모든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다.

또한, 2016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영화산업촉진법'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에서 문화산업 관련 법이 처음 생겼다.

- 중국 문화산업의 시사점은 주로 정부 주도로 정책과 법률 등을 통한 관리·감독, 전문인력 부족 및 금융자본 거대화(불균형), 국유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민간 및 외국자본의 높은 진입장벽, 창의 및 창작에 대한 많은 제한, 모바일 등 산업 초창기 수입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의존, 저작권 보호 의식 부족과 법적 장치 미비 등 있다.

- 이건웅 대표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홍원표 팀장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국내 문화산업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대표는 중국 문화산업 시장의 통제, 외국기업의 높은 진입장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 현지 문화산업 기업들과 협력·합작 방식 등을 통해 중국문화시장을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박경철 팀장, 충남도 해운항만과 최춘용 항만계획 팀장, 선문대학교 조윤주 교수 등이 중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 이후 한국의 대중국 교류 문제점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26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지방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제26회 충청중국포럼(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은 2017년 12월 13일(수),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중국연구 분야 관련 전문가의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 지방도시 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SUNY Korea 왕윤중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양갑용 연구실장, 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 연구위원,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와 박순찬 교수, 인천대학교 이주영 교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환우 연구위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현 팀장, 경기대학교 오대원 교수, 충남도 미래정책과 이성일 한황해팀장과 이정아 주무관, 기업통상교류과 최성민 중화권팀장, 김은숙 주무관과 마춘정 주무관, 정명복 안보정책자문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 양갑용 연구실장은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과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제19차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2기 체제(2017-2022)를 맞아 중국의 국가전략 비전의 대강을 선보인 자리였다. 그 내용은 중국식 제도와 규범 그리고 담론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과 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을 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건국 100년을 맞아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간단계로 2035년을 설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은 새로운 발전 이념 견지(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발전 이념, 공유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 지속, 각 영역에서 정부 역할 강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국의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공급측 구조개혁/농촌진흥전략/도농 균형발전 전략/시장경제체제 보완과 개방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중국공산당 장정에 명확하게 적시했다. 먼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대한 임무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당장에 삽입했다. 둘째,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반드시 더 질이 높고, 더 효율적이며, 더 공평하고, 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당장에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당장에 명확히 삽입하였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향후 중국의 모든 정책, 특히 대외관계 변화는 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움직여나갈 것이고, 우리의 전략은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잘 편승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중간 상호보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김명아 연구위원은 “한중 FTA 협정과 지방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체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전체 2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중 FTA 경제협력 챕터에서는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한중 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협정문 제17장 25조에 따라서, 한중 양국은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지방정부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시범 협력 사업은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하고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은 경제특구성시범지역(자유무역시험구/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금융종합개혁시험구/남색경제구/국가급시구) 활용을 통해 개혁개방을 확대시키고 한국측은 한중지방경제협력구(SEZ: 경제자유구역/금융중심지/제주국제자유도시/기업도시/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운용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한중지방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2단계 협력방식(선행시험조치+후속협상), 협력시기(2단계협상 과정에서 선행시험조치), 협력체계(한중 FTA에 근거, 중앙정책 수립, 한중지방정부협력 대상지역 확대)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중지방경제협력 확대 시 정책적 고려할 사항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물류증진, 정책협력, 무역 편리화, 정부 및 민간교류, 상호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김수한 연구위원은 “한중 지방 연계협력 강화 방안: 지방정부 대외교류체계 검토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양국은 수교 이후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중앙정부 간 협력과 더불어 민관산학 각계의 협력과 노력,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을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의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가 중국의 지방정부와 640건의 자매 또는 우호도시의 결연관계를 체결한 상태이다. 양국 지방정부 자매우호결연관계는 각종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31개 성(省)급 행정단위와 309개 지(地)급 행정단위는 전세계 133개 국가의 지방정부와 2,181건에 달하는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과 우호도시관

계 체결 건수는 157건으로 일본(249)과 미국(243)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2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중 수교의 역사를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지방도시가 상호교류에 매우 적극적임을 방증한다.

최근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교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교역확대, 관광진흥에 주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한중 FTA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자 중국과의 비즈니스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교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외교 및 민간외교에 대한 당(黨)과 중앙정부의 강조를 배경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지방정부는 자신의 대중국 교류 목적과 지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실질적 협력 파트너인 중국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고안해야 한다. 한국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2> 제26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SUNY Korea 왕윤종 교수, KOTRA 정환우 연구위원, 인천대학교 이주영 교수, 경기대학교 오대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현 팀장, 공주대학교 남수중 교수, 충남연구원 송두범 단장과 박경철 팀장 등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한중협력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 전략, 상하이 자유항과 한중 FTA를 연결하는 방안, 인천과 웨이하이 간의 공동시범구 협력 방안, 한중 지방정부 간 시범산업에서 한국 중앙정부의 역할, 한중 해저터널 이슈 등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neong@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7.12)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대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